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기간	1/13~2/2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파견대학 위치는 캐나다 밴쿠버(100 w 49th Ave, Vancouver, BC V5Y 2Z6 캐나다)이다. 규모는 작고 시설은 좋은 편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구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이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수업 내용은 매우 기초적인 영어 회화에 대한 내용과 캐나다에 관련한 내용이 속해있었다. 수업 방법은 대체로 논의 방식이 많았고 프레젠테이션, 그룹 활동이 속해있었다. 수업은 따로 분반을 하지 않았으며 강사는 친절하지만 그룹 활동을 너무 많이 지향하고 너무 쉬운 내용만을 다루어 아쉬웠다. 과제는 매우 간단한 과제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업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교재만 준비하면 됐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1. 컬링 캐나다의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인 컬링을 체험하는 활동. 준비물은 따뜻한 옷가지들. 추가비용은 없었음. 2.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길고 높은 캐필라노 다리를 건너는 이색적인 경험과 아름다운 경치와 숲을 즐길 수 있는 활동. 준비물은 역시나 따뜻한 옷가지. 추가비용 마찬가지로 없었음.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비가 많이 온다고 했으나 운이 좋게도 이번 단기 어학연수 기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았으며 하늘 또한 맑았음. 날씨는 때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캐나다 기상청에 들어가 확인해보기를 바람. 기상청 날씨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일 바뀌는 편임. 우리나라보다 기온은 높으나 바람이 찬 편이므로 찬 날씨에 약한 사람들은 따뜻한 겨울옷들을 챙겨갈 것. 두꺼운 한 벌보다는 얇게 여러 벌 겹쳐입는 것이 좋음.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매우 위험함. 우리나라와 같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는 절대 다니지 말 것. 홈리스들을 유의하고 길거리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피해서 바로 건물로 들어가야 함. 가스타운 부근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고 어두워지면 늘어남.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v)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는 케바케입니다. 분위기도 케바케입니다. 규칙도 대부분 샤워 시간 짧은 거랑 방에서 뭐 먹는 거 안 된다는 거 빼고는 케바케.. 유의사항은 초반에 빨리 파악하고 불만점같은 거는 바로바로 말하기. 초반에 말하지 않으면 3주 내내 시달려야 함.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점심은 대부분 샌드위치였음. 저녁은 잘 챙겨주셨지만 현지에서 사먹는 경험을 위해 많이 사먹으려 다녔음. 이것저것 다 사먹어 본 바로는 추천할 만한 곳은 햄버거 집은 A&W(파파 버거) 피자집은 슬라이스 프레쉬 피자집(비프 피자과 치킨 들어간 피자) 올드 스파게티 팩토리(미트소스 스파게티) 한식집(가격이 좀 있었지만 다 맛있음) 일식집(다 평타 이상). 이 외에 다른 분들이 추천해주신 곳들을 다 가봤지만 와 맛있다 하는 곳은 없었음.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운이 좋게도 학교와 가까운 곳에 홈스테이를 배정받아 걸어 다닐 수도 있었고 버스를 타면 3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는 마치 신창면과 같이 지연이 많이 되고 온다고 하고 안 오고 그러므로 꼭 미리미리 구글 맵과 트랜스링크로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딱 맞추지 말고 미리 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카이라인은 시간대가 매우 많으므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만 종착역에서 자동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환승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라인 시간도 구글 맵과 트랜스링크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6205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850000원	밥값, 쇼핑비 포함
합계	24705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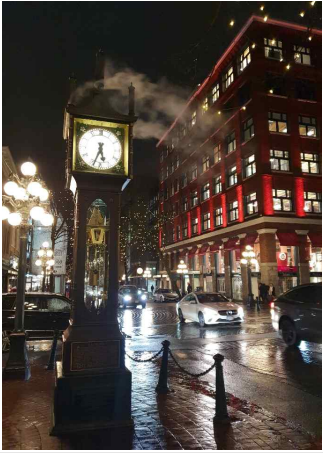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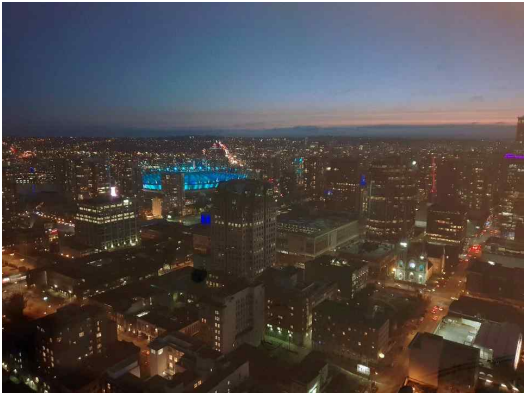
밑에 한 번에 서술함.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꼭 가 보고 싶은 나라가 된 것 같다. 수업이 정말 지루했고 컬링 프로그램 할 땐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활동들도 다 재미있었다. 수업이 진짜 너무 재미없다는 것과 유치원에 온 귀찮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캐나다 랑가라 대학교로 올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 팀 짜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친구랑 안 오고 혼자 오게 되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밥은 그냥 사먹는다고 생각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경비 는 생활비로 80만 원정도 들고 오면 편안하게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즐길 수 있다. 맥아더글랜 아울렛에서 꼭 쇼핑하길 바라고 옷은 아울렛에 많으니 미리 서치해보고 옷을 덜 가져가는 것도 짐을 줄이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Gastown-Steam Clock	Canada Place
	
Aquarium	Victoria Island-주립의사당
	
Harbour Centre-전망대	Capilano Suspension Bridge